

트로트계 풍경 확 바뀌 줄 가수 린과 마리아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설이야기

설날은 원일(元旦)·원단(元旦)·정조(正朝)·세수(歲首)·세초(歲初)·세시(歲時)·연두(年頭)·연시(年始)·신일(愼日) 등으로 부르는 이름도 참으로 많다.

이 말들에는 주로 처음이라는 의미와 삼가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 대부분이 시작하다와 관련된 글자가 많다.

‘설날’이라는 말은 단어의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한살 더 먹기 때문에 ‘살’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우리말엔 모음의 변화로 의미를 바꾸는 것이 많다. ‘남다’와 ‘넉다’, ‘늘다’와 ‘넉다’ 등이 이처럼 같은 의미에서 확장되어 변한 단어이다. ‘월인석보’라는 책에도 보면 예전에 나이를 셀 때 ‘살’로 발음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가 하면 ‘선날(새로 일어난 날)’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학자도 있고 ‘늦설다’에서 유래해서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간 낡은 것과 작별하고 낯선 날을 맞이하는 것’이라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말은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운 의미를 담고 정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필자가 보기에는 ‘살’과 ‘설’의 어원이 같은 것에서 유추하여 나이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중부대 한국어학과 교수·한국어학회 회장



조우석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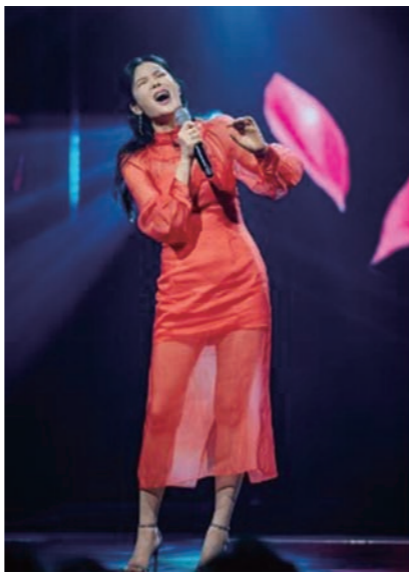
평론가
전 KBS이사

“트로트 강점가?”고 묻는 이들이 없지 않다. 그들은 “트로트”라며 고개를 내젓는다. TV 종편지상파케이블TV까지 몽땅 트로트판이니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트로트 붐은 여전히, 주변부 장르에서 벗어나서 중심부를 향해 질주 중이다.

마리 밝히지만 요즘 나만의 즐거움이 두 가지 있다. 우선 연세대 합재봉 교수의 명저인 6권짜리 시리즈 ‘한국 사람 만들기’를 읽는 재미다. 두말할 것 없이 국내 학계 최고 수준의 성찰이다. 당연히 자유 우파 지성인들의 필독서다. 그걸 완파하는 게 얼마 전 세운 올레상 반기의 목표다.

그와 별개로 요즘 트로트에서 작지 않은 위로와 즐거움을 느끼는 걸 고백한다. 실제로 요즘 트로트 붐을 쌍끌이하는 TV조선 ‘미스트롯3’과 MBN ‘현역 가왕’을 보며 응원하게 된 가수가 한둘이 아니다.

그 전에 고백할 게 있다. 왕년에 클래식 음악 책을 펴내고 재즈광에 국악 애호가로 통했던 음악 마차광이 나왔다. 지난 반세기 사들인 음반 컬렉션만도 집 한 채 값 이상인데 이제는 트로트를 입에 달고 산다. 뒤늦게 사람 꼴이 좀 되어 간다는 뜻일까? 어쨌거나 내 마음속의 ‘비틀 이미지 3인방’인 정서주·류원정·한여름에 걸린다. 특히 정서주를 거의 매일 반복해 듣는다. 장담하자면 정서주는 머지않아 이미지 반열에 오를



트로트 프로그램 열풍이 거세다. 무대에서 열창하고 있는 가수 린(왼쪽)과 마리아.



마리아 추억의 소야곡

스카이데일리

것이다. 그리고 이미 팬덤을 형성한 전유진·김다현과 함께 트로트의 앞날을 책임질 것도 분명하다. 그리고 발라드에서 트로트로 돌아온 가수 린도 높이 평가한다. 얼마 전 그녀가 불렀던 민요 ‘한오백년’은 끝내 줬다. 바로 그런 게 트로트의 맛이다. 조용필이 1980년대에 불렀던 ‘한오백년’에 비금가가나 그 이상이었다.

그 통에 1960년대 국악계에서 ‘하늘이 내린 소리’로 통했던 명창 김옥삼까지 생각났다. ‘정신 아리랑’ ‘한오백년’을 잘 불렀던 김옥삼을 만어 하나 독자가 안다면 정말 귀경창이 맞다. 어쨌거나 린이 흥미로운 이유는 그녀의 전향 이유다. 요즘 트로트가 대세라니까 물어 가겠다는 게 아니다. 발라드로 성공하기 전 어릴 때부터 린은 트로트를 좋아했다고 방송에서 수줍게 고백했다.

결과적으로 꺾기란 이름의 비브라토를 절제할 고품

위 트로트의 탄생 조짐에 나는 즐겁다. 린의 등장은 트로트의 이종교배이고, 요즘 유행어대로 융복합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방송사들은 이참에 가수 박정현도 트로트로 영입하길 바란다. ‘비 내리는 영동교’를 그녀 만큼 맛있게 부르는 이도 드물다. 일테면 올 추석 ‘단박 정현 뉴트롯쇼 기획’ 같은 건 얼마나 흥미로울까?

뿐만인가? ‘미스트롯3’와 ‘현역 가왕’에서 승승장구하는 가수를 보며 즐거워하는 것 못지않게 떨어져 나간 가수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또 다른 매력의 요요 마·두리교·아인·김산하 등이 그들이다. 짜잔, 이제부터 미국 여성 마리아 얘기 차례다. 실은 얼마 전 그녀가 경연곡으로 선택했던 1966년 남인수의 노래 ‘추억의 소야곡’을 듣다가 흠칫 놀랐다. 가요사의 대사건이란 직감을 했다.

본래 마리아는 ‘정말 좋았네’ 등 주현미 노래에 일가

견이 있었고, 그런 쪽을 맴돌아하고 끝날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 그랬던 그녀가 ‘현역 가왕’ 프로그램에 나와 국악 스타일의 ‘천년 바위’에 도전하더니 올드 트로트로 뛰어든 것이다. 결과는 대박이다. 누구나 의아해 한다. “어떻게 미국 여성이 올드 트로트까지 소화할까?” 그런 개인적 성취를 넘어 문화사 차원의 일이다.

일테면 근대 최초의 소프라노로 꼽히는 게 윤심덕이다. 애인인 극작가 김우진과 함께 현해탄에 투신했다는 그녀는 1926년 ‘사의 찬미’를 레코딩한다. 그걸 유튜브에서도 들어볼 수 있는데, 문제는 노래 솜씨다. 오죽했으면 가요 연구자 이영미가 “할머니 찬송가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을까? 음정부터 불안하다. “굉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가 옛가락처럼 흔들린다.

“도료음악학교에서 성악 전공한 거 맞아?” 소리가 나올 판이다. 그건 윤심덕 개인의 능력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 낯선 서양음악의 음계를 따라잡기가 그만큼 어려웠고, 100년 전 너무도 당연했던 동서양 문화 차이라고 봐야 한다. 실은 관련 출신 박재선·이류석이 함께 불렀던 ‘이 풍년 세상’ 레코딩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마리아의 감쪽 도약이 새삼 놀라운 건 그 때문이다.

그러려면 이유를 우리 마리아가 활약하는 한국 트로트계의 열기발발해진 풍경이 제비이다. 그리고 괜한 관심 하나가 더 있다. 마리아가 근사한 한국 청년을 만나 서울에 뿌리내리는 모습도 우리 보고 싶다. 냉정하게 말해 그녀의 트로트 실력은 아직 2%가 부족하지만 그 건 과거에 연습한다고 채워질 종류의 것이 아니다. 연애하고 가정 꾸리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녀가 한 미용명 홍보대사란 말은 얼마 전 들었다. 그러저래 용피 아가씨 마리아 엘리자베스 리스, 우리 당신을 응원한다.

소상공인 살리기 시대에 외면 받는 카센터



데일리 Talk

노태하
생활경제부 기자

법령에 규정된 신차 출시에 따른 정비 교육 및 매뉴얼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정비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최근 몇 년 새의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2016년에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제작사 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교육 정비장비 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신차를 출시하면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정비업자들에게 관련 정비 매뉴얼 제공과 정비 교육 진행에 나서야 했지만 현재까지 여전히 자동차 제작사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

특히 정비 교육에 있어서는 정비업자에 대한 공지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하듯 자동차 업체들은 교육 대상자인 일반 정비업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제멋대로 교육을 알리고 진행해 사실상 신차 출시에 따른 정비 교육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계에서는 정비 매뉴얼 제공에 대해서도 제작사

와 협력 정비업체를 차별대우한다는 지적까지 나오지 오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비업계는 자동차 제작사들이 제대로 의무이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 줄곧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호소하고 최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문을 두드린 지 오래지만 바뀐 것은 없다고 한다.

정비업계는 국토부에는 자동차 제작사들에 대한 이행명령이나 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를 요청했고 국회에는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 줄 것을 수년째 요청 중이지만 해당 문제에 관해서는 별 소식이 없는 상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눈치나 보고 있고, 국회는 정비업계라는 잊혀져 가는,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부분의 사소한 현안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냐”며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소상공인을 대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국회의원이 적지 않고 정부 또한 지난해 11월 최초로 대통령까지 소상공인

연합회(소공연)가 주관하는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직접 소상공인들을 신경쓰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격려사에서 “소상공인 여러분이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며 “대선 당시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였고 취임 후 정부 제1호 국정 과제 역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과 도약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참석한 소상공인대회를 주관한 소공연에는 카포스(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커캡(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정비업계 역시 소속되어 있다.

대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상생을 강조하고 정치권 역시 소상공인을 강조하고 있는 등 ‘소상공인 살리기’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인 카센터가 더는 여전히 외면 받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처가 요구된다.

tnh@skyedaily.com

스카이데일리 Skyedaily

발행·편집인 조정진 주필 황종택
인쇄인 임재청 편집국장 고동석

(주)스카이데일리
창간일자 2011년 9월 2일
등록일자 2011년 7월 18일
등록번호 서울아017033(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가50131(일간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6(충정로1가 청양빌딩) 7층
TEL 02-522-6595 Fax 02-522-6597
홈페이지 www.skyedaily.com
구독료 월 15,000원/연 180,000원

농협경제지주

가까이 하면 더욱 안전한 우리축산물

농협 **안심** 한우
 농협 **안심** 한돈
 농협 **안심** 계란
 농협 **안심** 축산

우리나라 축산물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농협안심축산. 이것은 전국 농축협과 함께 합니다.